

전남 서부권



목포시 용당 배수펌프장 토출구가 입암천과 맞닿아 있어 물의 흐름을 방해해 2호광장 침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신설 공사중인 용당 배수펌프장 토출구.

목포 2·3호 광장 상습침수 피해 막을 용당 배수펌프장 무용지물

토출구 입암천과 맞닿아 3500t 펌프 댐 되레 역류

강찬배 시의원 내년 5월 완공전 예방대책 마련 주장

목포시가 147억원을 들여 용당동 유달경지장내에 건설중인 용당 배수 펌프장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포시의회 강찬배 의원은 지난 27일 실시된 제292회 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2·3호 광장 일대 침수 방지를 위해 용당 배수펌프장을 신설 중에 있으나 펌프장 완공이후 펌핑을 하게 되면 평소에도 유속이 느린 입암천의 상류가 정체돼 2호 광장의 침

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용당 배수펌프장이 정상 가동돼 분당 3500t에 달하는 양을 펌핑하게 되면 토출구에서 입암천으로 곧바로 흐르게 돼 있어 일종의 수벽(차벽)이 생겨 상류에서 흘러내려 오는 빗물의 흐름을 방해, 오히려 2호 광장으로 역류하게 돼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강 의원은 “2호광장 일대의 빗물이 저류조로 유입되도록 연결은 돼 있으나 현재의 시설만으로는 2호 광장에서 유입되는 용량을 모두 소화하기에

역부족”이라며 “2호 광장 주변의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배수펌프장 준공 전까지 침수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을 편 강 의원은 지난 제7대 의회에서 2·3호 광장 침수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분야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반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강리단장은 “실시설계 보고서에 문제점과 해결점이 다 나와 있다. 이제 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추후에 하계끔 돼 있어 순위대로 하면 된다. 문제는 돈이지 예산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용당 배수펌프장은 2·3호 광장 일대서 유입된 빗물

이 남해 배수펌프장으로 빨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밖에 없다. 관로를 매설해 토출구를 남해 유수지 인근까지 끌어다가 설치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 경우 2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돼 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면서 “남해 배수펌프장을 확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배수펌프장 1곳 추가 신설과 남해 펌프장 확장 등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용당 배수펌프장 신설공사는 지난 2009년 5월 착공돼 오는 2012년 완공 예정으로 최근 5차분 공사가 시작됐으나 올해 투입될 지방비 8억 4600만원이 확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 기자 yousou@

완도 국비예산 확보 동분서주

군수·군의회의장 동행 중앙부처에 지원 요청

완도군 김종식 군수와 박삼재 군의회의장이 지역현안 해결하기 위해 국비예산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9일 완도군에 따르면 김 군수와 박 의장은 지난 24~25일 이틀간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장차관과 국회 등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록의원을 만나 지역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또 군 실과소장들은 실무진들

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등 ‘땀투땀’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지역 현안사업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노화~구도~소안간 연도교 가설공사 ▲청산도 제2수원지 신설 ▲청산도 공공 주차시설 ▲‘웃을 테마촌’ 조성 ▲‘슬로시티’ 관광진흥 기금 확대 지원 ▲청산도 해상 교통대책 등이다.

김 군수와 박 의장의 중앙부처 방문은 지난해 8월 국비확보를 위해 동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jechung@

원전 온배수 환경영향 지속 모니터링

郡, 영광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4년 허가 조건 공개

영광군이 한국수력원자력㈜ 영광 원자력본부에 4년간 사용하도록 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영광원전은 지난달 원전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가 위치한 바다 6만 8614㎡와 원전 1~6호기 냉각수 물량인 115억8664만t(연간)의 바닷물을 30년간 점·사용 가능하도록 신청서

를 영광군에 제출했다.

영광원전은 그동안 1년 단위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0월 공유수면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0년 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허가기간 마감 이틀을 앞둔 지난 20일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수 사용기간을 4년으로 허가했다.

그러나 군이 허가조건을 즉시 공개하지 않자 일각에서 허가 조건에 특

별한 내용을 담거나 영광원전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허가조건에 따르면 허가조건 대부분은 해양 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의 결과를 반영했으며, 해수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등 기존의 허가조건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기존허가 조건중 논란이 된 ‘부관부 어업권자’(공공사업 추진시 시설물 철거나 어업권 박탈에 대항하

송지 어란당집 등 2건 해남군 향토유적 지정

해남군은 지난 26일 2011년 상반기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열고 송지 어란당집과 문내 효자 조석창 감응비각 등 2건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했다.

어란당집은 당시 민초들의 기복신앙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전남지방에 남아있는 당집에 비해 그 규모가 크고 지붕 기와도 흙기와를 쓰는 등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이 참작됐다.

이와 함께 감응비각은 창녕조씨 문중에서 관리하는 비각으로 예조에서 1863년(철종 14년) 여각을 세워 포상 정소송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목포지역 학교들 과학명문 도약

전남 학생과학경진대회 금상 수상 등 22명 입상

목포지역 학생들이 최근 열린 ‘제33회 전남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굵직한 상들을 휩쓸었다.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신)은 이번 대회에서 금상 4개, 은상 4개, 동상 8개, 장려상 6개 등 모두 22명이 입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생활과학 등 3개 부문에 개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다양한 발명품을 출품해 학습용품 분야 금 2개, 학습용품

과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각각 1개의 금상을 수상했다.

특히 ‘생활과학 부문’의 ▲파리 퇴치기(목포신희초 3학년 박성준) ▲뒤축이 잡힌 신발도 쉽게 썰는 구두 주걱 휴대용 지팡이(목포신희초 5학년 전정환)와 학습용품과 자원재활용 부문의 ▲간이 정전기 발생 장치를 이용한 정전기실험(목포제일중 3학년 방찬혁) ▲PC용 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일반현미경의 디지털 전환 장치(목포대성초 5학년 문승인)가 눈길을 끌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진기자 sslee@

전 북

기자 노트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지난 23일 열린 간부회의 석상에서 전례 없이 대노(大怒)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김지사는 각 실국장들의 인일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지사는 “LH공사 말고는 전라북도는 할 일이 그렇게 없습

상황은 정오를 넘어 하오 6시를 향하면서 내실을 찾는데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전북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 등이 전북의 뿔이 아니다. 전



자전거 이용하세요 군산시 공무원들이 지난 27일 ‘자전거 이용의 날’ 선포식을 마친후 시청 주변 2.7km 구간에서 자전거 퍼레이드를 갖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군산구도심 근대 역사를 담는다

1930년대 당시 조선은행·미즈상사 등 복원 예술 창작공간 등 구축 내달부터 본격 추진

군산시가 1930년 당시의 근대역사 도시의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산시는 그동안 군산대와 경원대가 추진해온 ‘근대역사문화벨트 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2012년 말까지 100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의 핵심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군산 구도심의 경제를 움직였던 주요 기관과 공간을 재현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옛 조선은행과 일본 제 18은행, 미즈상사, 대한통운창고 등을 복원하고 이를 건물을 예술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쌀 수탈의 상징이었던 옛 조선은행 건물에는 당시의 수탈 과정과 시대상을 담아 전시공간으로 꾸미기로 했다.

문화와 예술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장소로 구성하고, 특히 이 건물 1층에는 카페테리아를 설치해 이 일대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 밖에 당시 수탈과정에서 만들어진 미곡창고인 ‘대한통운창고’ 등은 공연장과 예술창작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미술인과 시민에게 문화공간으로 대어해줄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전북발전 ‘LH’ 말고는 없다



강철수 <전북취재본부 기자>

나”고 따져 묻고 분발을 촉구했다.

옳은 지적임에 틀림없다. LH문제는 그대로 해당 부서가 거기에 함몰해야 되고 다른 부서들은 또 각기 부서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새로운 것을 찾고 기존 추진하던 것이 있다면 보다 효율성 있게 기획력을 갖춰야 한다.

“실패는 성공의 열쇠”라는 말이 있다.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의 차선책을 마련해 최선의 피해를 줄이는 길 뿐이다.

지금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만 지금의

국적으로 분배를 해준 상태이고 보면 사정이 이렇게 결과를 가짐에 있어 김완주 지사도 뿔(?)이 날 수밖에 없다.

언제나 싸움이란 한번 졌다고 지라는 법은 없다. 왜 싸움에서 패했는가를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김 지사역시 마음은 착잡하고 괴롭겠지만 이미 패한 LH분산 배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전주 혁신 신도시를 원안에 가깝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내야 한다.

/knews@kwangju.co.kr

군산에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신축

군산시 오식도동에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가 세워진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건축심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오식도동 새만금산업단지 앞 9만㎡의 부지에 전체면적 7000여㎡ 규모로 지상 2층의 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비즈니스센터는 각종 회의와 전시

를 할 수 있는 컨벤션홀과 세미나홀, 소회의장을 갖추고 기업유치나 인근 입주업체를 지원할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전북도는 ‘베스트웨스턴 관광호텔’이 신축되는 인근에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섬으로써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는 물론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전북, 전국 제1 블루베리 생산단지로 자리매김

전북지역이 웰빙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블루베리의 주산지로 자리매김했다.

27일 전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의 블루베리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92%가 늘어난 2541ha로 전국(1082ha)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해 전국의 예상 생산량(1790t)의 52%(930t) 가량이 도내에서 출하될 예정이어서 블루베리가 복분자, 오디와 함께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베리류로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1년 사이에 블루베리의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각종 언론 매체에 의한 홍보와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변화, 새로운 소득 작물에 대한 농가의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내 블루베리의 산지는 순창과 고창, 임실, 진안, 완주, 익산 등지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각 지자체단체에 의해 모둠과 자재, 비가림 시설 등이 지원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뉴스 브리핑

새만금 산단 1-2공구 이르면 7월부터 매립

새만금산업단지 1-1공구에 이어 1-2공구 매립이 이르면 7월 시작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매립을 마무리한 새만금 산단단지 1공구 1차(95만㎡) 지구에 이달부터 331만㎡의 준설토로 기반조성을 하는 동시에 이

르면 7월에 1-2공구 매립을 시작할 계획이다.

2공구의 매립 면적은 254만㎡로 최근 매립공사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다. 2018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2배 남짓한 1천870만㎡ 규모로 조성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남원 ‘지리산 들레길권 에코빌리지’ 추진

남원시는 옛 풍경을 복원해 농촌지역의 자원을 환경친화적 자원으로 개발하는 ‘지리산들레길권 에코빌리지(Eco Village)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인월면 중군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에코 빌리지사업’은 지리산권의 남원·장수·곡성·구례·함양·하동·산청 등 7개 시·군이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며 ▲한국적인 옛마을 풍경 복원 ▲문화 휴게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개발 촉진 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1.5% 상승

김제시 개별 공시지가(㎡ 면적당 가격)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자가변동률을 보면 상업지역은 구 도심권의 지속적인 침체 영향으로 보합세가 유지됐고, 나머지 지역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소

통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2011년 1월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 지가에 대해 소유자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민원소통과에 이의를 신청하면 재조사 거쳐 7월말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순창종가 장류공장 준공 본격 생산 돌입

순창군 인계 농공단지에 위치한 (주)순창종가(회장 윤영욱) 장류공장이 지난 27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순창종가는 3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1월 인계면 농공단지

내 3467㎡ 부지에 1765㎡의 순창공장을 착공해 지난해 완공했다.

(주)순창종가는 이번 준공된 공장을 포함해 순창에만 2개의 공장을 설립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